

[아버지학교 10주년] 인터뷰 다시 목회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신현모 목사·나인숙 사모(성장교회)/ 2005/ 페이지수: 3

한국의 수많은 아버지들을 성경적 아버지로 회복시킨 두란노 아버지학교가 10년의 나이테만큼이나 이 땅의 아버지, 더 나아가 한국사회에 그 어떤 통계수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목회자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성도에게 자신의 상처를 나누기가 쉽지 않아 회복이 힘든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평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아버지학교에 참여해 자신과 가정과 교회까지 회복된 목회자가 있어 아버지학교 10주년을 맞아 그 역사속의 한 주인공으로 만나보았다. / 임재금 기자 ljg14@onnuri.or.kr

신현모 목사·나인숙 사모(성장교회)

아버지학교를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고, 그를 통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 땅의 많은 아버지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가정 해체위기, 자살직전에서 회복돼

충주에서 작은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신현모 목사(성장장로교회)는 지난 5월 열린 두란노 아버지학교 826차 서빙고 62기를 수료했다. 그는 요즘 이 아버지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회복된 기적과 같은 일을 간증하기에 바쁘다고 한다.

“아버지학교를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고, 그를 통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 땅의 많은 아버지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신 목사는 어느덧 아버지학교 예찬론자가 되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신현모 목사는 아버지학교에 참여하기 직전 가정은 해체 위기에 있었고, 자신도 자살을 몇 번 시도할 정도로 삶에 대한 회의로 가득차 있었다.

그는 이혼을 결심하고, 10년 이상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눴던 성도들에게 차마 이혼한다는 말을 못하고 목회를 쉬겠다는 핑계로 자신들이 맞는 교회로 가라고 강제로 떠나보냈다. 20년간 목회를 했지만 살아갈 소망도 목회할 힘도 희망도 사라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다. 현실은 그야말로 절망과 좌절에 속에서 가정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아내와는 결혼 초부터 갈등의 연속이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목회자이면서도 늘 다투는 모습만 보이는 아버지를 보며 자녀들도 차라리 헤어지라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제 삶은 온통 불신과 정죄와 미움과 갈등과 다툼뿐이어서 더 이상 버티고 설 곳은 아무데

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상대방에게 정죄의 돌을 던지고 원망하는 가운데 화목해야 할 가정은 온통 싸움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신 목사는 사람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가정이 파괴되고 자신이 파괴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사단만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에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의 영혼의 울부짖음의 소리가 들에서 산에서 울려 퍼졌다.

“주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때 읊의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해 흘러 나왔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감사의 고백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다음날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30일 동안 작정기도를 하자고 제안했다. 20년 동안 늘 나인숙 사모가 신 목사에게 제안했던 말이다.

평신도와 함께 아버지학교 참여

작정기도를 하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목회자가 뜻밖에 찾아와 아버지학교에 갈 것을 권유했다. 처음에는 거부감도 있었지만, 거절할 힘조차 없어 별 기대감 없이 참석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 목사에게 놀라운 회복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다. 신 목사가 아버지학교에 참여하기 위해 강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흘러나오는 찬양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 찬양에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강의가 시작되었는데, 스태프들의 얼굴을 보니 정말 해처럼 밝았습니다. 나도 이 과정을 마치면 저런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아버지학교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아내와 자녀들과 허깅을 했다. 그리고 아버지학교의 하나하나 충실히 해가면서 아내와 자녀들 간에 멀게만 느껴졌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생전 처음 아내와 자녀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지나간 제 잘못과 말과 행동들이 생각나면서 회개했습니다. 나로 인해 상처 받으며 살아온 아내와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에 비오듯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아버지학교를 마치며 메마르고 공허한 마음에 아내와 자녀를 향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그의 가정을 덮고 있었던 어두움의 그림자가 물러가면서 주님이 비추시는 빛과 성령님의 생기가 부어지기 시작했다.

아내와 자녀 ‘행복해요’ 고백 넘쳐

아버지학교를 통해 성경적 아버지로 회복된 신 목사 가정에는 이제 ‘행복하다’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가족들의 입에서 흘러나온다.

“남편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평생 이런 기적같은 일이 일어날 줄 상상도 못했죠. 요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며 산답니다.”

나인숙 사모는 비록 세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행복하다고 말한다. 20년 동안 결혼생활에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목회자와 결혼했지만, 늘 불화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왜 살아야 되나’ 회의밖에 없었다.

20년 동안 나인숙 사모의 기도제목은 한결같이 ‘행복하게 주의 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런 고통의 세월이 이젠 남은 목회인생을 위한 단련으로 여기는 지금이 그저 행복하다고 말한다. 특히 남편인 신 목사가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이후에 화내지 않고 대화해 주는 것과 여자에 대해 이해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변화고 그것이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변화된 아버지로 인해 ‘행복하다’며 이제는 사랑의 표현도 자연스럽게 할 정도가 되었다.

“가정이 회복되니 기도응답도 놀랍도록 이뤄지고 있으며, 이제 목회에 대한 비전과 소망도 생겼습니다.”

신 목사는 아버지학교를 통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자존감과 정체성의 길잡이가 되었다며 아버지학교 전도사를 기꺼이 자청했다.

*** 출처 - 온 누 리 신 문**